

[여성칼럼] 신의 도구

강희주 집사 / 페이지수: 2

망원경은 눈의 연장이다. 컴퓨터는 두뇌의 연장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우리들의 꿈의 연장이다. 바이올린이나 하프시코드, 모든 스포츠 등도 우리 몸과 두뇌와 열정의 연장이다. 마르셀 모스는 '인간이 쓰는 모든 도구는 인체의 연장이다.'라고 했다.

'로마병사들이 자기 몸에 못을 박던 무렵부터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속엔 무엇이 떠올랐을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대답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몸의 자세까지 결정지을 것이다.' 목자적인 체취와 폭발하려는 힘과 자제와 용서와 권능과 부활과 아울러 파괴의 아픔까지 그리스도의 상을 십자가 위에 조각하려는 미켈란젤로의 고뇌는 시작되었다. 그는 수도원의 시체 안치실에 몰래 숨어들어 밤마다 망치와 끌로 시체를 해부했다. 푸른 동맥과 정맥, 두개골과 팔의 근육과 관절, 턱, 심장, 엉덩이뼈와 육중한 허벅지의 근육을 만져보았다. 신보다는 인간적인 그리스도의 고뇌와 내적 의문과 갈등으로 괴롭도록 꼬인 모습과 머리와 무릎을 반대 방향으로 놓는 대위적인 구성을 통해서 두 길로 끌리고 있는 한 사람의 강렬한 육체적, 정신적 갈등의 시각적인 긴장을 모색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심한 고문의 순간에 모든 불안을 극복할 강력한 내부의 힘을 쏟아 부어야 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의 인생은 오로지 한길 예술에 헌신하여 조각, 회화, 건축 등 다비드,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와 최후의 심판, 천지 창조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룩했다. 41kg의 말라빠진 노구로 90세까지 작품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충실한 신의 도구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다

푸른창공과 싱싱한 초목과 넘실대는 바다와 부드러운 바람과 휘휘 감도는 공기 속 하나님의 빛 속에 우리는 한 톨의 씨앗처럼 거침없이 던져졌다.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신 그분은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안락하고 필요한 것에 던지신 것이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서 출발한다. 처음에는 내 모습만 보인다. 내 이름과 내 몸뚱이와 내 머리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도구로서의 뚜렷한 형상도 없고 무디고 거칠고 사방으로 툭툭 튀다. 주님은 지독한 참을성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갈고 닦으시며 정결하게 씻고 반짝거리도록 쓰다듬어 주신다. 그리고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의 도구들이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며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발걸음을 맞춰 주님과 같이 걷기를 원하신다. 물론 우리가 보장받은 최고의 귀한 보석 같은 자격이다.

준비된 도구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렘 20:18)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 예레미야의 탄식이다.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대하 18:26) 미가야 선지자에게 닥친 고난이다.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지금 내 생명을 취 하옵소서'(왕상 19:4) 차라리 죽기를 원했다. '내가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행 20:31) 사도바울의 고난 또한 잔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로서의 예수님 탄식을 듣는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 하였도다'(눅 13:34) 선택된 도구는 고난으로 연마된다. 준비된 도구는 반항하지 않는다. 죽기까지 충성한다. 내 목소리와 내 욕심과 내 뜻이 없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을 닮아 완전한 도구가 되어 갈 뿐이다.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 만 보이게 된다.

기다려주시는 주님

'언덕에 서서/ 내가/ 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까닭은/ 강물이 모두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천상병의 「강물」이라는 시처럼 우리는 불붙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멋대로 방황하는 다리를 무릎사이에 묻고 짐승처럼 운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 나를 온전히 버리지 못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요, 쓰실만한 도구로서의 한없는 부족감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난다.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 출처 : 은누리신문